

크스님 수행한담

“지는게 이기는 것이니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真心直說) 19

故修一切善行 以為對治 고수일체선행 이위대치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번뇌가 일체의 법에 두루 덮였으므로 온갖 선행을 닦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니...

야 보살이 상(相)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12. 진심의 공덕(真心功德)

或曰有心修因 不疑功德矣 혹유심수인 불의공덕의 무심수인 공덕하래

물었다. “유심(有心)으로 닦는 인(因)은 그 공덕을 의심할 것이 없지만 무심으로 닦는 인은 그 공덕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曰有心修因 得有爲果 無心爲因 實無功果 實無功果 實無功果

據此所論 以休歇安心爲正 거차소론 이휴할망심위정

선법 닦을 때는 무심해야지

인과 집착하면 진여증득 어렵다

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 其福不可思議 今見世人 有參學者

망복불원 금기망제 공덕현전 고영가 云 三身四智體中圓 八解六通心地印

대답했다. “유심으로 닦는 인은 유위(有爲)·영구불변의 절대적 존재인 무위의 상대에의 과보를 얻고, 무심으로 인을 삼으면 성품(性)의 공덕을 나타낸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일여스님 (대구 유심사 주석)

예전에는 어른스님들을 뵈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향기와도 같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자비보살로 존경받는 고암스님 같은분은 수좌들이 찾아오면 손수 차를 끓여주시거나 방석을 내주곤 하셨어요.

크스님이란 자고로 몸보다는 마음이 커야하고 마음보다는 법이 커야하는데 요즘엔 법은 온데간데없고 목소리만 큰 것 같습니다.

중버슬은 담벼슬보다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언제 질릴지 모르는 벼슬에 집착하여 출가본분을 잊어버리는 스님은 하루속히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만 작리나는 생명의 싹을 왜 지르라는 것이었지요. 스님은 나름대로 생활철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노후에도 아침공양후에는 꼭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어요.

또 아침예불에 빠지면 아침공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1백40여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예불에 빠진 사람을 꼭 잡아 알아맞추곤 하셨습니다.

아침공양이 시작되면 예불에 빠진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oo스님은 예불을 올리지 않고 밥이나 축내는가?”

그런 스님을 못가땡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스님은 근 3년간 시봉하게 됐는데 하루는 스님이 신이신 나일론 양말에 탐심이 동했습니다.

재물은 들어올 때 바쁘고 나갈 때 바쁘다. 평생 허겁지겁 바쁘게 살다가 공부

“무슨 어른이 시봉하는 제자한테 양말 한켠레도 안주나” 이런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지요.

오늘날 권력다툼하는 스님네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미계 비구계는 온데간데 없고 물욕과 감투욕에 눈이 멀어 업을 예사로 짓고 있어요.

5~60년대 까지만 해도 수행도인들이 있어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찾아 다니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그렇게 많을 필요도, 호화로운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사장이든 탈수 있는 차는 한 대 뿐이겠습니까? 품이 한나데 통시에 2대를 어떻게 타셨습니까?

1930년 황해도 신계 생 1959년 범어사에서 지호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문경 해국사, 선산 원각사, 상주교당 주지 역임 現 대구 유심사 주석

“웬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분별심 놓고 분수에 맞게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분별심을 놓고 과연 내 분수에 맞는 길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욕심이 차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질로만 기준을 삼는다면 마음은 늘 불만족스럽고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재물은 들어올 때 바쁘고 나갈 때 바쁘다. 평생 허겁지겁 바쁘게 살다가 공부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관계를 다소 수직적인 것으로 규정짓는 이러한 관념들은 이제 전체의 일부분으로 국한시켜야하며 대신 서로간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 내지는 수행도반으로서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가 풍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福)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데 아닙니다. 돈으로 살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복은 재벌들이 다 사갈겁니다. 우리 절에는 10년째 나오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다들 부단없이 왔다가 기도하고 갑니다. 서로 내집같이 가족같이 지내다보니 허물이 별로 없어요. 가끔씩 절문턱을 낮추어 편하게 출입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결망 신제품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결망을 매세요. 좋은점 6가지. 가격 대: ₩33,000 / 소: ₩30,000.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교육안내. 교육기간: 4박5일(매주월요일 오후 2시 시작, 금요일 정오 수료식).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마사지교육(지압, 태극, 일본식) 4. 카이로프랙틱교육(막대교정법, 주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3,800,000 B: ₩4,300,000. 왕토 관련 전문 회사 왕토 마을 예선. 황토 흙벽돌기계. 황토 흙벽돌기계. 황토 흙벽돌기계.